

## 그로테스크한 내면 풍경과 섬세한 서정성의 공존

김태원 · 춤평론가, 『공연과 리뷰』 편집인

하나의 공연은 보는 이들 각자가 하기 마련인 그 같은 기대 혹은 예측과 실제 무대 위에서 보인 것이 얼마나 일치/불일치하는가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기대와 실제 공연이 크게 어긋났을 때에는, 예상치 않은 낯선 풍경과 마주치게 되면서 그는 자신이 본 공연에 대해서, 그것을 만든 이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좌어도 한번쯤 호기심과 의아함을 결들여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된다. 단순히 대상에 대해서 놀라는 것만이 아닌,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숨은 존재의 힘을 그는 침묵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다.

3월 초 '춤작가 12인전 20주년 기념 공연에서 본 중견 현대무용가 전미숙 안무의 「묻지마세요」, 대전 중심으로 창작춤 활동을 하고 있는 역시 중견 창작춤꾼 정은혜 안무의 「봄의 단상」, 그리고 30대 신진들로 꾸민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현대춤꾼 이영일과 이용인의 듀엣이 그 같은 공연들이라 하겠다.

2006 05 May

평론가나 일반 관객들이나 대개 하나의 춤공연을 보러 갈 때는 어느 정도의 정보나 일종의 선입관을 갖고 간다. 타인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소식이나 신문의 기사, 혹은 공연장에서 받아보게 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공연 전 그리고 공연 중에도 그는 공연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나 어떤 예측을 내심 한다. 따라서 하나의 공연은 보는 이들 각자가 하기 마련인 그 같은 기대 혹은 예측과 실제 무대 위에서 보인 것이 얼마나 일치/불일치하는가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꼭 맞아떨어지는 않았지만 공연이 자기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대부분 그는 큰 감흥을 느끼기보다는 그의 삶의 세계와 예술이 별다를 바 없이 연결되고 있는 어떤 영속성을 무언(無言)의 일체감 속에 느낀다. 그러나 반대로 그의 기대와 실제 공연이 크게 어긋났을 때에는, 예상치 않은 낯선 풍경과 마주치게 되면서 그는 자신이 본 공연에 대해서, 그것을 만든 이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적어도 한번쯤 호기심과 의아함을 결들여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된다. 단순히 대상에 대해서 놀라는 것만이 아닌,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숨은 존재의 힘을 그는 침묵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처럼 내게 알 수 없고, 또 얼마쯤 신비한 그 무엇으로 다가왔던 공연들을 나는 근자에 보게 되었는데 3월 초 '춤작가 12인전' 20주년 기념 공연(3월 6~8일, 아르크 대극장)에서 본 중견 현대무용가 전미숙 안무의 「묻지마세요」, 대전 중심으로 창작춤 활동을 하고 있는, 역시 중견 창작춤꾼 정은혜 안무의 「봄의 단상」(대전 문화예술의전당, 4월 5~6일), 그리고 30대 신진들로 점점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현대춤꾼 이영일과 이용인의 듀엣(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4월 13~14일)이 그 같은 공연들이라 하겠다.

### 여성의 존재성 문제 부각시킨, 전미숙 춤공연

현대무용을 이용해 시대비판과 여성성의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현대무용가 전미숙의 춤 제목은 종종 대화투

의 반어법(反語法)을 쓴다. 지난해 LG아트센터에서 공연했던 「반갑습니까?」도 그 같은 예라 하겠다. 그 공연에서 전미숙은 남·북 교류 행사 등을 통해 흔히 들을 수 있는, 이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사를 패러디하면서, 남북화합의 문제 속에 여전히 적대적 긴장관계가 팽팽히 유지되고 있는, 달리 말해 외부로부터 차갑게 차단되어 있으면서도 내적으로는 큰 구멍이 뚫려 있는 불안한 관계 설정을 했다. 공연의 후반부 밝은 조명 아래서 서로 상처된 극점을 이루고 서 있는 인물들 위로 천장에서부터 천천히 불안하게 가라앉고 있는 큰 방패 연의 존재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상징했던 것이다. 이번 작품은 그 같은 정치사회적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전미숙 춤의 큰 주제이기도 한 여성의 존재성 문제를 그녀 특유의 강한 색채감과 입체적 조형성을 빌려 표현하고 있었다.

마치 입체파 화가 F. 레제의 한 원통형 인물과 같이 그 공연에서 전미숙의 신체는 둥근 원추형의 의상에 감싸여지면서, 머리는 단두대에 선 사형수와 같이 의상 바깥으로 삐죽 나온 채, 두 팔은 마치 새로운 상점 오픈식 때 길거리에서 자주 보게 되는 스카이 인형같이, 수직으로 하늘 높이 부풀어 올려져 천공에 매달려 있는 듯했다.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니멀한 행진곡풍의 음악에 맞춰 몸통을 좌우로 천천히 비꼬면서 때론 그로테스크하게, 또 때론 우스꽝스럽게 뒤척였다. 그런 사이 익명의 한 남자가 쟁반 위에 한 마리 요리된 듯한 닭을 통째로 받쳐 들고 들어와 그녀 앞에 섰다—공연자는 그것을 가까이서 먹지 못할 테니까 눈으로만 보고 먹으란 것인가? 아니면 쟁반 위의 그 닭과 같이 그녀 자신의 익혀지고, 발가벗겨진 운명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일까?

여하튼 이 작품에서 매번 전미숙의 춤이 그렇듯이 그로테스크한 조형성, 감정과 붉은색을 쓴 의상에서 엿보여지는 강렬한 색채감을 동반한 춤의 표현성, 그리고 퍼포먼스적 행위성이 짝을 이뤄 그녀의 공연은 별다른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보는 이로서는 쉽게 읽을 수 없는 상징적

메시지를 다발째로 보여주고 있었다. 어디에선가 딱히 의지할 수 없으면서 매 시각 매 분 부자연스럽게 고공에 떠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재(여성적 존재성), 그리고 요리된 닭처럼 쟁반 위에 발가벗겨져 있는 여성적 운명체—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일견 에밀 졸라와 같은 사람이 그리고 싶어했던 리얼 하면서 끔찍한 자연주의적(비록 입체적이고 표현주의적 의상을 입었지만) 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전미숙 특유의 간헐적인 경련적 몸동작, 어둡게 머리 앞으로 고개를 숙이는 자세, 둔한 듯한 충격적 리듬—모두 20세기 초반 독일 현대무용가 마리 뷔그만의 질고 전율적인 솔로 춤을 내게 연상시키기 충분했다.

#### 서정적이며 스펙터클한 풍광으로 변한, 정은혜 춤공연

중견 창작춤꾼으로서 쉽게 현대화된 흐름을 타지 않으면서, 다양한 소재의 춤을 나름대로 소화해내고 있는 정은혜의 「봄의 단상」은 그 제목에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대로 밝고 경쾌한 춤의 그림일 것이라는 손쉬운 상식적인 예측을 크게 벗어나고 있었다. 오히려 하나의 춤으로 푸는 교향곡과 같은 흔치 않은 춤의 구조와 무게를 이 공연은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 공연을 보고 나서 나는 한 사람의 무용가의 창조성과 그 상상력을 어떤 큰 지평 위에서 봐야 할지 내심 당황하고 있는 중이다. 이 지점에서 우선 한 춤꾼의 작품 세계를 쉽게 예측하고 또 나름대로 재단하는 나의 태도도 반성할 여지가 많겠지만, 지난해 국립무용단 객원 안무자로 「미얄」을 공연한 후 불과 1년도 채 못 된 기간에 「봄의 단상」이란 주제 하에 네 편의 독립된 춤을 묶어놓을 수 있는 이 춤꾼의 예술적 힘이 무엇보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웠다.

‘춘앵전—그 역사적 풍경을 바라보기’, ‘외롭고 높고 쓸쓸한’, ‘언제나 그리고 그러나’, ‘운명의 불’이란 네 개의 소주제를 붙인 이 공연은 대전문화회관 대극장에서 1시간 20분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그 각각의 춤들은 독립된 구조를 가지면서, 그러나 그 근처에는 봄의 시공간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이영일의 「사철나무-춤추는 한 남자의 겨울나기」

담아내고 있었다. ‘춘앵전’이 그 춤 특유의 무감정한 정중동의 분위기 속에서 점차 인간적 감각을 깨우치게 되는, 즉 궁중무라는 엄격한 형식적인 춤에서 산 인간의 체온이 담긴 춤이 되는 그 과정을 그렸다면, 두 번째 작품은 남성군무의 힘을 빌려 어떤 지열(地熱), 즉 대지가 몸 더워져 가는 과정을 담아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김일륜의 가야금 음악과 정은혜의 솔로가 교합을 이루는 일종의 월무(月舞)를,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그 같은 모든 인간적 감각·지열·자연의 기운이 합해져 생명의 불(火)이 인간에게 전해져 또 다른 계절(여름)로 가기 직전의 흩날리는 꽃잎 축제와 같은 서정적이고 스펙터클한 풍광으로 변화해가고 있었다.

‘춘앵전’에서 높은 호리존트의 무대에 흰 의상을 입고 비스듬한 자세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다 바닥무대로 내려와 긴 천을 여유 있게 접어올리고 공간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정은혜의 담백하고 집중감 있는 무태(舞態)와 세 번째 춤에서 보여준 자유분방하고 힘 있는 김일륜의 가야금과 마치 음양으로 절제되어 있고 소박하게 어울려 들어간 정은혜의 춤은 그것 자체가 볼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더불어 두 번째 작품에서 남성들의 자유로운 군무와 특히 네 번째 작품에서 고목(古木)을 배경으로 목신에서 노파(김경원), 그리고 딸(이금용)로 이어지고 있었던 상징성을 띤 생명력 전달의식은 「봄의 제전」과 같은 비극미는 없었지만, 쉽게 와 닿는 하나의 알레고리컬한 설화가 되고 있었다. 국립극장 대무대만한 큰 무대를 무리 없이 써가면서 우리춤이 담아낼 수 있는 담백한 아

름다움과 여유감, 필요에 따라 현대춤적 동작과 구성에서 끌어올 수 있는 안무의 담대성, 적절한 상징과 설화적 이야기를 섞은 춤의 복합적(절충적) 전개는 예상치 않게 창작춤 보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었다. 더불어 무리 없이 이어진 장면 전환의 연출력은 적지 않게 인상적이었다.

### 영적 파동과 분위기 선사한 이영일의 춤공연

이윤경·이용인·강경모·최성철, 이 네 사람의 안무가가 30대 현대춤꾼 이영일을 안무해 주는 특이한 공연형태를 취한 이영일의 「사철나무-춤추는 한 남자의 겨울나기」 중, 이용인·이영일의 듀엣은 근래 보기 드문 순수한 춤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 갈색톤의 원피스와 의상을 입고, 일종의 체호프적 정서—대지적 기운의 스킴과 애잔한 삶, 시간 흐름의 혼용—가 깔려 있는 이 공연에서, 이용인의 안무는 자신의 삶과 이영일과의 거리감을 매우 변화 있게 조정하면서 항상 꺾쇠처럼 두 신체를 엮게 세워놓았다. 엉덩이를 뒤로 빼며 가볍고도 깊은 굴곡을 보여준 이용인의 신체와 마치 창백한 얼굴 표정으로 고개를 뒤로 젖히는 듯 낮게 상승하는 신체,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옆에서 듬직하게 받쳐주는 가운데 꽤 탄력적인 몸동작을 보여준 이영일의 부드러운 이동 춤은 두 개의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따뜻하면서(대지적이면서)도 창백한(영적) 분위기를 띠고, 놀랍도록 섬세하고 탄력적이며 자유로운 이중의 겹그림자를 무대 위에 만들어주고 있었다.

신체의 어느 부분도 감염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듯한, 즉 낮고 부드럽게 떠오르고 자유롭게 뒤로 빠지는 이용인의 신체는 춤에 바쳐진 한 마리의 새처럼 공간에 드문 영적 파동과 분위기를 새겨주고 있었다. 그 춤은 나로서는 1990년대 초 안애순이 안무한 여러 춤들 속에서 이윤경이 보여주었던 놀라웠던 춤 이후 거의 처음 느껴본 순수한 춤의 움직임이었으며 한 편의 시(詩)였다. 대지에 어둡한 그림자를 깬 채 고민하면서, 대지를 박차고 오르는 가벼운 충동감—춤이 줄 수 있는 모든 생명력과 신비한 메시지가 거기 있는 듯했다. ●●